

2002년 국내외 경제동향과 주류 산업

I. 세계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



박 시 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2001년 들어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져들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2000년 4분기 1.9%성장에서 2001년 1분기에는 1.3%, 2분기에는 0.2%, 3분기에는 -0.4%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불황국면을 맞고 있다. 산업생산이 세계경제는 정보통신(IT)부문의 급속한 재고 투자조정 및 미 테러사태등으로 인해 산업생산 감소, 실업률 급등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유럽(EU)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며 특히 일본은 산업생산 감소, 지속적인 물가하락 및 높은 실업률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0년 4분기 2.6% 성장에서 2001년 1분기에는 0.1%, 2분기에는 -0.8%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했다. 이같은 선진국 경제의 동반침체로 대만 싱가포르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국가들도 수출감소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2002년도 7%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 目 次 ■

- I. 세계 경제동향 및 전망
- II.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 III. 주류산업의 과제와 대응방향

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주택정책 개혁에 따른 신규 주택건설 및 해외자본의 꾸준한 유입에 힘입어 건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WTO(세계무역기구)가입이 성사됨에 따라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섬유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WTO 가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예정된 은행산업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가운데 기업부문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2002년 세계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진국의 정책공조 강화를 들 수 있다.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대응하여 경기부양을 위하여 선진국들이 통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9.11 테러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이 생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테러사태의 경기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집행중인 550억달러 외에 67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개혁안을 통해 부실채권정리와 규제개혁에 대해 보다 강화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로는 최근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상당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9.11 테러사태의 충격이 단기간에 수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여건변화라 할 수 있다. 테러사태

이후 폭락했던 미국 증시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테러전쟁이 수습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회복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들어 미국 자동차 판매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의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는 국제 유가하락을 꼽을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산유국간의 감산합의 실패 등으로 최근 배럴당 유가가 16-17달러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유가하락은 인플레이 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선진국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2년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다. 우선 미국의 민간소비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주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정점 대비 미국의 주가는 크게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자산효과에 의한 민간소비 위축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1년 11월 현재 나스닥지수는 2000년 3월의 정점에 비해 60%정도 폭락하였으며 이는 시가총액이 약 4조달러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채도 꾸준히 증가해 부채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14%를 상회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부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가계부문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가계 저축률이 최근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단기적인 소비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전세계	4.7	2.6	-	2.7	3.5	-	3.3
선진국	3.8	1.3	2.0	1.5	2.1	2.8	2.3
(미국)	4.1	1.3	1.7	1.7	2.2	3.1	2.6
(일본)	1.5	-0.5	-0.5	1.1	0.2	1.1	0.5
(EU)	3.4	1.8	1.8	2.7	2.2	2.7	2.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9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1. 4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1. third quarter.

둘째로는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도 세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GDP 대비 4-5%에 달하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의문이 고조될 경우 급격한 기축 통화간 환율변동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외불균형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유럽경제는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중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큰폭의 달러화 가치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2-3년 내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을 GDP대비 2%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수준의 달러화 절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정도의 달러화 절하는 1985년 플라자 합의이후의 달러화 절하폭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세계 교역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장기 불황으로 낮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민간 저축 하락률이 예상되어 경상수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U경제는 전체로는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EU회원국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및 동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고려할 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로는 9.11 테러 사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제적 거래비용이 증가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세계교역과 관련하여 통관절차 강화, 운송화물 및 여객에 대한 보험료 상승, 화물처리기간의 장기화 등이 예상되며, 이러한 거래비용 증가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의 내용면에서도 안보 및 보안관련 공공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공지출 확대는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거래비용 증가를 장기적으로는 무역자유화 진전 및 기술발전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변화를 종합할 때 2002년 세계 경제는 2001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회복의 정도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는데 비관론의 경우 2002년 미국경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기업실적 악화, 주식시장 침체등으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IT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2001년중 미국 경제는 0.5-1.6% 성장에 그치고 2002년의 성장률은 2%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테러피해 복구 및 방위산업의 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2.8-3%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세계 교역

세계 교역은 2000년의 경우 선진국 경제의 성장과 후발국의 약진으로 12.4%에 달하는 물량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1년들어 세계 경

제의 침체와 함께 교역량 증가율이 4.0%내외로 급감했다. 2002년의 경우 세계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교역량 증가율도 2001년 수준을 약간 웃도는 5%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국제금융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통화별로 혼조양상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테러사태 이후 달러화는 스위스 프랑,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강제로 반전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등 일부 신흥시장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 등 선진국과 신흥시장간에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달러화 약세는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우려와 국제자본의 이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에서의 테러발생과 함께 '안전통화'로서 달러화의 의미가 상당정도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세계 각국의 공조강화등과 함께 달러화 약세는 진정되고 엔화에 대해서는 강제로 반전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미국 달러화는 국제자본의 움

<표2>

세계 교역량 신장률 전망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세계교역량	12.4	4.0	7.2	3.9	5.7	8.0	5.0
선진국 수입	11.5	3.6	6.7	-	5.3	7.4	-
(미 국)	13.7	7.2	4.8	-	7.1	6.7	-
(일 본)	9.9	0.2	5.7	-	1.5	5.3	-
(E U)	11.0	3.4	-	-	4.4	-	-

주) IMF와 OECD는 '물량' 기준, WEFA의 경우는 '금액' 기준

직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등과 함께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보여 0.95달러(연평균)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엔/달러환율은 115-125엔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투자자본의 본국 환류, 고이즈미 개혁의 가시적인 추진등이 엔화 강세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등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유가동향

미국 테러사태이후 국제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테러사태 직후 공급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가가 급등했으나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퇴등이 겹쳐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200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20-25달러 범위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I.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

2001년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률은 1분기 3.7%, 2분기 2.7%에서 3분기에는 1.8%를 기록하고 연간 성장률은 2.5-3.0%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3분

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으나 1.8% 성장을 보여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생산을 보면 9월들어 4개월동안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이는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월에 비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증가율의 하락세와 재고증가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국면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IT 및 반도체 부문을 제외 할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의 경우 도소매 판매증가율이 2001년 2분기의 4.4%에서 3분기에는 4.7%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내구소비재 출하는 금년 3분기중 29.6% 증가했으며 2분기의 8.3%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9월에는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10월에는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는 3분기중 12%내외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나 9월중에는 전월에 비해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증가로 3분기중 17%증가하여 2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02년의 경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이 불투명하여 경제활동이 어느정도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둔화추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테러사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월드컵 개최 및 선거등이 계기가 되어 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회복 가능성도 있으나 산업생산 및 수출증대가 뒷받침 되어야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경기회복 요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대외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2002년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은 3%대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경제가 2001년에 이어 2년 연속 저성장에 머무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사태가 미국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국내에서는 월드컵을 무사히 치르는 등 상황이 호전될 경우 2002년 우리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리경제는 5%정도의 건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확대로 투자와 소비가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는 2001년의 침체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산업경기는 2002년 하반기

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여 과거와 같은 가파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2002년 우리경제가 침체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할 것인가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전개방향과 대내여건을 얼마나 잘 정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2년도 실질성장률을 5%내외로 잡고 있다.

2. 무역·경상수지

2001년의 경우 세계경제 침체 및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에 따라 3분기에도 큰폭의 수출감소세(-19.3%)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자본재를 중심으로 감소세(-15.5%)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 및 교역조건 악화등에 따라 2001년 3분기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억달러에 그쳐 2분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교역조건은 세계 경제 및 반도체 경기의 침체에

<표3>

각 기관의 2001년 및 2002년 경제전망

기 관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				
2001년	2.5	4.3	3.8	95
2002년	4.2	4.1	3.1	105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2.1	4.4	4.0	75.3
2002년	3.0	3.1	4.4	32.0
한국경제연구원				
2001년	2.7	4.6	-	117.2
2002년	4.4	3.2	-	69.4
IMF				(GDP대비)
2001년	2.5	4.4	4.0	2.6%
2002년	4.5	3.4	3.5	2.1%

따라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11.4%하락함으로써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2002년에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통상압력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도 30-4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들의 수출확대전략으로 미국등 선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조선등 주력수출품에 대한 보호주의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수출진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대외환경이 개선되어 세계 교역이 2001년 5-6%증가에서 2002년 7-8%대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도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경상수지는 50-1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환율절상, 경쟁력 약화로 큰폭의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수입도 가할 것이므로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3. 물가

소비자 물가는 2001년 2분기중 5%를 상회 하였으나 9월이후 농산물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3%대로 둔화되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2002년 물가상승률은 2001년보다 크게 둔화되어 3%초반에 머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요위축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등에 따른 부담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낮아져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대형 할인점의 확산 및 개방화 효과, 국제유가 안정, 원달러 환율의 하락등도 물가안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02년중 경제성장률이 5%선으로 높아지는 경우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고 대선과 월드컵 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은 4%선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성장률이 회복되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2년 상반기 지방선거, 하반기 대선과 월드컵 개최등의 분위기를 타고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4. 금리, 환율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후 금리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경기흐름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경상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금리가 수렴하고 있으며, 2002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2002년중 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기준으로 6.2%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회사채 수익률은 연평균 7.5%로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화는 경기가 지속되는 경우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불안한 움직임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적으로 외화공급 우위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원화는 전반적으로 달러화에 대해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이 경우 원화는 달러당 1,280원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경우 2002년중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상당정도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II. 주류산업의 과제와 대응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에 비추어 앞으로 주류산업의 환경은 앞으로 다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경제의 회복이 앞당겨지고 이에따라 국내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는 경우 주류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경제성장률이 2001년의 3%전후에서 2002년에 5%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 주류소비도 그만큼 증가하고 이는 주류산업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주류소비만큼 경기의 영향을 받는 상품도 드물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은 주류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02년 주류산업의 환경은 2001년에 비해 상당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은 유흥주점의 주류소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주류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감면의 취지는 탈세방지에 있지만 가격인하로 이어질 경우 고급 유흥주점의 주류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고급 수입주류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 점이다. 우리나라의 양주 소비량이 세계 3위라는 사실에서 엿볼수 있듯이 국산 주류보다는 양주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을 뿐 아니

라 주류 소비패턴도 값비싼 수입 주류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급 양주를 비롯해 수입포도주 소비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국내 주류업계의 판매활동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산 주류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국산 주류는 품질보다는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류선택에 있어서 가격요소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양주와 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주류 소비행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류소비 행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격보다는 품질위주의 생산 및 판매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류의 품질향상은 단기간에 이뤄질수 없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국내 주류산업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브랜드가치가 낮다는 점이다. 이렇다 할 브랜드나 품질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처지에서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경쟁력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밖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수출상품의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주류가 물밀듯이 국내시장에 밀려들어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내 주류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개척을 통해 국제화하는 길밖에 없다. 소주를 비롯한 일부 주류가 수출에 성공한 것은 국산 주류의 수출 시장 개척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선 타킷 마켓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의 술소비 행태 및 선호하는 맛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현지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주류수출의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다. 특히 다양한 민속주의 대량생산 및 수출상품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주류의 수출상품화 및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류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술은 안좋은 것이라거나 주류산업을 필요악

정도로 여기는 풍토에서는 세계적인 주류산업이 육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주류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프랑스, 일본, 아일랜드 등 주류 생산국들은 자국의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자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주류를 육성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류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식하는 풍토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산업도 생산 고용 수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하기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but you can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 Abraham Lincoln-